

통합사회·과학 추가 최소 4과목 절대평가...수험생 부담 ↑

통합사회 8과목 통합...문과는 과학·이과는 사회 공부 부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 합류...국·수·탐에서 변별력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통합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절대평가 범위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실상 출제과목도 늘어나는 모양새여서 실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응시영역은 똑같이 7개...출제과목은 사실상 증가=정부가 내놓은 2가지 시안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기존 영어, 한국사 외에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개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1안', 7개 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2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탐구영역이 1과목 줄고 통합사회·통합과학 1과목이 늘어 응시영역 수가 똑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학교에서 따로 수업하는 별개 과목이다.

특히 통합사회는 현행 일반사회·지구·역사,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융합한 것이다. 기존에 8개 과목에서 배운 개념을 합

쳐놓은 영역이므로 학생들은 사실상 8개 과목을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기존에 수능에서 피할 수 있었던 과학분야를, 이과 학생은 사회분야를 공부해야 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학습량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경우 여러 과목이 결합된 형태인 데다 선택과목에 제2외국어·한문까지 응시한다면 공부해야 할 수는 과목이 실제로는 현행보다 늘어난다"며 "수험생 입장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9등급 절대평가 적용 과목에 '논길'=정부 시안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절대평가 범위 확대다. 현행 수능의 경우 영어·한국사를 뺀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다.

학생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누적 백분위를 산출한 뒤 상위 4%까지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23%까지는 3등급을 주는 등 9개 등급으로 나누는 식이다.

정부는 수능 상대평가가 학생 간 무한경쟁을 촉발하고 난도가 높은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출제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어 절대평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 영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영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받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절대평가 확대안
8월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 예정

2018 수능 (현행)		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2안 전과목 절대평가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수학 가·나형 중 택1	2	수학 가·나형 중 택1	2	수학 가·나형 중 택1
3	영어	3	영어	3	영어
4	한국사	4	한국사	4	한국사
5	사회탐구 9과목 중 최대 택2	5	통합사회·통합과학	5	통합사회·통합과학
6	탐구 텍1 과학탐구 8과목 중 최대 택2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택2	6	탐구 텍1 4과목 중 택1 직업탐구 단일과목	6	탐구 텍1 4과목 중 택1 직업탐구 단일과목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최대 택1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

10점 단위로 등급이 바뀐다.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고 5점 단위로 등급이 떨어진다.

교육부의 두 가지 시안을 보면 1안은 국어·수학·탐구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두고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국어·수학과 탐구과목에서 최소한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교협 자료개발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장광재 승덕고 진학실장은 "통합사회·통

합과학의 경우 여러 과목이 결합된 형태인 데다 선택과목에 제2외국어·한문까지 응시한다면 공부해야 할 수는 과목이 실제로는 현행보다 늘어난다"며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교육부의 시안대로라면 통합사회·통합과학을 1학년 때 만 공부한 뒤 수능을 봐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어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전교조 "1안, 과목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
주요대 입학처장 "2안 변별력 확보 안돼"

각계 반응

10일 발표된 2021학년도 수능능력시험 개편 시안에 대한 교육계 안팎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전면적인 절대평가 시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절대평가 전면 실시와 부분 도입 주장이 엇갈렸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새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수능 비중 약화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면서 "1안과 2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한 시험에 두 가지 평가 잣대가 존재하는 1안 보다는 오히려 2안이 낫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안은 '수능 영향력 약화'라는 개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수학 등 상대평가

과목으로 쏠림현상을 일으켜 과목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개악 안"이라고 주장했다.

2안에 대해서도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9등급제여서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면서 "수능 준비 중심 교육을 지속시키면서 변별력 시비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교조는 평가했다.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전면적인 절대평가 도입에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최재현 건국대 입학처장은 "7과목을 모두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은 대학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학 입시에서는 좋은 변별력을 뒤야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2안처럼 가면 상위권 대학 지원자의 등급 간 격차가 없다"며 "대학으로선 등급 차가 거의 나지 않는 학생들을 줄 세워서 뽑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국어·수학서 성패...대학 반영비율 확대 가능성

1안, 사실상 현행 유지...국·수 부담에 다양한 수업 지장

2안, 모든 과목 절대평가...상위권 학생만 학습량 줄여

1·2안 비교해보니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안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결국 국어와 수학이 수능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에 포함되는 7개 영역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1안' 시안처럼 일부 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둘 경우 국어와 수학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들이 주요 과목인 사회·과학·영어가 모두 절대평가인 만큼 대학이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각 대학은 상대평가로 남아 있는 국어, 수학, 탐구과목의 반영 비중을 일제히 높였다.

문동호 광주여고 진학부장은 "(1안대로라면) 정시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영역은 국어와 수학 등"이라며 "수험생은 두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안 안을 선택할 경우 변화가 크지 않아 대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실 개혁 역시 국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때문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초등교감 2명 승진 부당 처리
감사원, 광주교육청에 징계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초등 교감 2명의 승진 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광주·울산·강원·충북지방교육청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13명을 초등 교감으로 승진시켰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인사를 할 때는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그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감사원은 승진예정 인원 13명의 3배수인 '39위' 밖인 40위 D 씨와 44위 E 씨가 교감으로 승진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달뜨기 21:37
해질 19:26 달지기 08:56

‘말복’에도 ‘짬뽕’

피부질환 환자들은 외출할때 각별히 유의하세요.

광주	구름많음	24/34	보성	구름많음	22/31
목포	구름많음	25/32	순천	구름많음	25/32
여수	구름많음	25/31	영광	구름많음	23/32
나주	구름많음	24/33	진도	구름많음	23/32
완도	구름많음	24/33	전주	구름많음	24/32
구례	맑음	23/32	군산	구름많음	23/31
강진	구름많음	22/33	남원	맑음	23/30
해남	구름많음	24/33	축산도	구름많음	24/30
장성	구름많음	22/32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서~북	0.5~2.0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1.0~2.0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9	21:49	04:31	16:42
여수	05:04	17:07	11:13	23:36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매우높음	
피부질환	

◇시간 날씨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	☀	☁	☀	☀	☀	☀
25/34	25/31	24/30	25/30	25/32	24/33	24/33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 676-7719
전남 061) 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애타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애타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